



병원사목 小考

박 병 원 신부

〈가톨릭병원장〉

복음의 선포와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단체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도 당연히 사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지난 수년동안 급격히 발전하고 팽창된 가톨릭계 병원이 한국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전체 병상수의 약 10%)을 감안한다면, 현재까지의 다소 소극적인 병원사목을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인 병원사목의 새 활로를 모색해야 될 줄 믿는다. 물론 현재도 각 가톨릭 종합병원에는 원목실을 두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로 임상사목, 즉 환자들에게 성사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종교서적을 대어해주며 필요에 따라 위로, 격려의 방문을 하는 것을 주로 하며 몇몇 종합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예비자 교리반도 개설하여 매년 상당수의 임직원을 영세 입교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치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상태를 답습하고 만족해서는 안되겠기에 나름대로의 소견을 피력해볼까 한다.

지난 '85년 10월말, 로마에서 있었던 제 1차 세계 가톨릭병원 종사자 대회의 주제는 가톨릭병원의 존재이유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What is catholic hospitals identity" 모든 가톨릭 병원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병든 이를 돌보고 치유하는 사명을 이어 받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가꾸어 나아가지 않으면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구미 각국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위해 첨단 의료가기를 도입하고 전문인들의 부단한 연수교육을 시키는 것 못지 않게 사

목적 영역에서 전병원 종사자들의 이념교육을 위한 투자와 연구노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병원종사자들에게 정신교육을 통한 그리스도적 사명감과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지 않는 한 가톨릭병원의 본 모습은 퇴색되고 따라서 환자를 위한 전인격적 치료도 불가능하게 되며 점차로 기업 경영 조직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병원사목의 초점을 일차적으로 모든 종사자들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수도단체가 경영하는 병원이나 교구경영 병원이나를 막론하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급격히 발전하는 주변 병원의 도전과 경쟁을 극복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임직원을 위한 사목적인 배려와 종교적 이념 및 정신교육에는 다소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구미 각국의 교육기관이 정치적 이유 이외에도 이념구현에 실패하여 몰락을 자초했다고 보고 병원에서도 이런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병원에서는 병원의 공식기구로서 Missio와 Operatio로 양분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Missio기구에서는 종교이념 교육을 위한 교육 Program을 부단히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전임직원을 예외없이 교육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병원 취업시 상당기간의 오리엔테이션의 이념교육과 각부서별로 근무 중에도 연간 일정기간동안 교육센터 같은데서 이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되겠끔 제도화한 병원도 여러군데 있었다. 이런 이념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한국에서도 재인식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해 봐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겠다. 그렇다고 어설피 구미 각국의 흉내를 내는 제도의 수입만으로서의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우선 병원을 경영하는

교회장상들의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모든 병원사목 담당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체적으로 상호유대를 맺고 공동의 노력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교재를 발간하고 한국 가톨릭병원 협의회 안에 상설기구를 두어 지역별로 몇몇 병원들이 합동으로 취업, Orientation Program 이나 이념연수교육 Program 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한 임상사목 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쇄신이 요망된다.

한 사제의 신심과 열성 그리고 노력 만으로는 효과적인 사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주체와 진료 각 분야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하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줄 안다.

그리고 환자의 특수심리 병원 환경의 특수성을 감

안할 때 사목자로서의 자질과 특수교육도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을 제도화하고 3단계의 교육기간을 이수케 한 다음 임상사목에 임하고 있다. 그 교육의 첫 단계를 Basic Training Course, 3개월간 매주 5일간 40시간, 둘째는 Intern Year 라고 하는 병원실습 과정을 9개월간 이수하고, 셋째로 Aupervisory Course 로써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케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병원사목에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고 안일하게 등한시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병원사목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재인식하고 병원 임직원, 환자, 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병원사목기구를 대폭 확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투입해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병원사목을 통해 가톨릭 병원의 동질성을 이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줄 안다.